



‘음지의 노동’ 양성화 방안 모색해야

기 획 없어도, 보여서도 안되는...〈10〉 에필로그

제주경제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존립 불가 고질적 인력 문제 합법적·선순환 전환 해결 필요 “외국 노동력 관리 정책 지자체 권한으로” 목소리

앞서 9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등록·미등록 외국인들의 현황 및 고용 실태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도내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서도 해양·수산업, 농·축산 등 1차 산업계의 현실을 취재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주 사회에 기여하는 객관적인 의미와 비중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점검의 결론은, 내국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충출되고 있으며 그 이익은 제주도에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또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고용주들 역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없어도, 보여서도 안되는 ‘음지의 노동’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고용 제도에 의한다면 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 인력 감소로 인한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할 것이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의 불법 입국·취업을 출입국 제도로 단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유행하는 불법 인력 알선 등과 같은 기형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산업 전반에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난무하고 체류 질서가 혼란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난제다.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 노동자 없이 합법적인 방식, 선순환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 1차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력의 고용 안정과 미등록 외국인 양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대안이 시급했다. 현재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물론 현장의 인력 수요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국가를 확대하고 수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놓여 열악한 숙소를 제공받거나 노동력 돌려 쓰기, 잦은 해고 등 비인권적인 사례들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제주도정, “몰라요” 말고 해법 마련해야

“도내 외국인 인력 정책 관련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희는 간단한 집계만 갖고 있고, 자세한 건 몰라요. 출입국에 문의하셔야 해요.” 을 초 사전 취재 과정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 정보 파악을 위해 제주도청 내 업무가 분할된 전 부서에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긍정적 현상 모두 제주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무가 전적으로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사무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



작업 중인 외국인 어선원들의 모습.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 사무이지만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실제 제주도청 조직에는 외국인 지원 부서가 제각각 흩어져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도청 내 이민 부서를 모색하거나, 행정 일선 부서에 외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자체 권한으로 지역 내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 노동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1차 산업과 관련한 계절근로자 업무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중간 연결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동력 아닌 사람이 온다”

대다수가 지자체의 행정 대상에서 소외돼 왔지만 이주민들은 코로나19가 발생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국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 소비자, 혹은 거주민으로 선주민들과 함께 공존해 왔다.

등록·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난민, 결혼이주여성, 인도적 체류자, 유학생, 재동포, 이주아동 등 외국계 주민들이 도내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내 내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77%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3.87%로, 내국인 대비 약 7.8배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은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10.62%라는 큰 폭의 감소가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인 인구 비율 증가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주들이 호소하는 사항의 골자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터에서 무급휴직, 임금삭감, 일거리 축소, 해고와 실직 등을 경험한 사례도 잇따랐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출입국외국인청 통계를 주어지는 수치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이탈한 인원을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다.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장기간 선박에 머물다 체류 기간 연장 기간을 놓친 어선원, 가정 불화로 이혼해 체류가 어려워진 결혼이주여성 등 역시 불법의 영역으로 미끄러진 이들로, 사회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넘어 공존과 연대라는 가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진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코로나 하루 확진 400명대로 ‘뚝’ 제주 최근 일주일 전주 대비 3673명 감소

격리중인 환자는 5821명

제주지역에선 일일 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동안 4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까지 3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536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 6461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23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3673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0~9세(10.3%), 10~19세(15.4%), 20~29세(11.2%), 30~39세(13.0%), 40~49세(15.4%), 50~59세(13.6%), 60~69세(10.7%), 70~79세(6.2%), 80세 이상(4.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5821명이며 이중 580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확진자가 2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기준 도내 위중증 환자 수는 5명이며 치명률은 0.06%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구좌읍 세화리 창고 화재 전소되며 4000만원대 피해

제주시 구좌읍의 한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30분 만에 전소됐다.

5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44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물품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층 건물을 모두 태우

고 5일 오전 4시 14분쯤 꺼졌다. 불은 창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타는 낱새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건물 337㎡가 전소되고 집기비품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449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전동휠체어 타고 가던 70대 화북동 도로에서 차에 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졌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

시 28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A(77)씨가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조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社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정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1 20만원 상당 삼선배양근 2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 1번 소진시 2번 시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G인베스타 브랜드대상 수상 소망

충전형 귓속형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사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시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골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임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은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